

---

# 월간 일본 수산 동향

## 2021년 9월

본 자료를 활용하실 경우, 해외수산협력센터  
(044-868-7833)로 문의/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



---

# 목차

---

## 일본 수산 동향

(1) 노무라입깃해파리 대량 발생, 어업 피해	01
(2) 코로나19로 인해 참치 관련 업계 수익 감소	04
(3) 생선 소비자용 이력 표시 첫 도입	07
(4) 일본 수산청, 인도네시아에 단속선 증여	09
(5) IWC/일본 공동 북태평양 고래류 목시 조사 실시	10

---

# 일본 수산 동향

## (1) 노무라입깃해파리 대량 발생, 어업 피해

일본 서쪽 연안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어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자주 나타나는 대형 해파리로 식용, 콜라겐 추출 등의 방향으로 활용 방법을 모색 중이지만, 현시점에서는 막대하게 늘어나는 개체 수에 비해 대처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진 출처 : 일본 요미우리 신문 게재, 사이토 코세이 촬영 )

- 심각한 어업 피해를 가져오는 대형 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일본 근해 연안에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음
- 8월 이후, 하나의 어망에 약 1,000마리가 걸리는 경우도 확인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었던 '09년 이후에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어업 관계자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봄에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를 타고 여름부터 일본 근해에 도달함
-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크기에 속하는 해파리로 길이가 2m 정도, 중량이 200kg 에 달하는 것도 있어, 어망을 파손시키고, 그물 안의 어류에 부착하여 신선도를 저하시킴

- 09년에 대거 출현하여 일본 전국 어업 피해액이 추계 약 100억 엔이었음
- 일반사단법인 어업정보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일본 근해에서는 어망에 걸리는 것은 10마리 정도였음
- 그러나, 올해는 8월 말부터 시마네현 오키제도 근해의 정치망에서 약 1,000마리가 걸리는 등 나가사키현에서 아오모리현까지의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어 예년보다 대형 개체가 눈에 띄고 있음
- 후쿠이현 근해에서는 8월 중순 이후 수십~수백 개가 확인되어 올해 7월에는 약 800마리가 정치망에 걸리는 피해가 있었음
  - 전갱이 정치망 어업에 영향이 있었음
  -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한번 어망에 걸리면 제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촉수가 어류에 닿으면 어류가 변색되고 상해, 상품으로 판매가 어려워짐
- '09년 대량으로 출현했을 때, 정치망에 수천~수만 마리가 걸려, 대부분의 정치망 어업이 12월까지의 어기를 반년 앞당겨 휴어하고, 대게 등에도 영향이 있었음
  - 올해는 어망이 망가지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9월 8일, 어업 관계자들이 모여 대형 해파리 대책 연락 회의를 개최, 경계를 강화
  - 일본 수산청은 해파리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쿠이, 효고 등 6개 도도부현에서 신청이 있었음 (9.10 기준)
  - 향후에도 상황을 파악, 적절한 지원을 검토할 예정

- 
- 우에 신이치 히로시마 대학 특임 교수 (해양생태학)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연안의 2월의 수온이 높으면, 일본에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올해도 중국 연안에서 2월의 수온이 높았음
  - 올해 중순 이후에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 출현이 비교적 안정된 편이나, 아직 그 서식 생태가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함

출처 : 요미우리 신문

---

# 일본 수산 동향

## (2) 코로나19로 인해 참치업계 수익 감소

코로나19는 다양한 산업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농림업,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의 경우, 생산 단계부터 부하가 가중되고 있으며, 수산 가공업과 같은 2차 산업에도 유통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참치 업계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참치 뱃살, 참치 덮밥, 고급 초밥 등으로 익숙하며, 세계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참치, 그러나 업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를 겪고 있음
- 어선은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쫓기고 있고, 초밥집은 시간을 단축하여 영업, 주류를 제공하는 식당도 제한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자장이 생기는 요소
- 참치와 관련된 수산업, 요식업 등의 636사의 최신 결산을 확인한 결과, 적자 기업이 105사 늘어나, 3사 중 1사가 적자였음
- 도쿄 상공 리서치 (TSR) 의 기업 데이터 베이스 (390만사)에서 참치와 관련된 어업, 제조가공, 소매, 요식업 등을 독자적으로 추출하여 분석
- 참치와 관련된 업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신 분기 매상은 3조2,146억 5,400만 엔 (전기 대비 2.9% 감소)로 수입이 감소했음
- 수익 감소는 전체의 7월에 해당하는 456사 (구성비 71.6%)에 달하며 그 중, 290사는 (구성비 45.5%)는 10%를 넘어 대폭 수익이 감소했음
- 수익이 감소한 396사는 6월에 해당하고, 적자는 228사로 전기에 비해 105사 증가, 전체 35.8%를 차지

-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에 따르면 참치를 포함 최근 선어 소비량이 감소했음
- 코로나19로 소비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21년 7월 국제회의에서 '22년도 참다랑어 어획 쿼터 (30kg 이상)은 '21년 대비 일률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음
- 어획량이 늘어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된다면 소비량 회복도 기대되지만, 수산업계나 요식업계는 당분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소비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636사의 최신 분기 매상액은 3조 2,146억 5,400만 엔 (전기 대비 2.9% 감소)
- 코로나19로 인해 참치 관련 업계가 고전하는 실태가 이어지고 있음
  - 어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운 사업환경에 직면해왔음
  - 추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원의 출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조업을 연기/휴지 해야했던 사업자도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소비자와 직결되는 초밥집 등의 경우 도매업자나 수산업자 등도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참치 어협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 일시적으로 어가가 하락했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어선의 조업은 선원을 파견할 때, 검사나 격리조치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함
- 참치 어획은 자원보호를 위한 각 지역수산기구 (RFMOs) 에 의해 제한 관리되고 있지만, 자원회복 등을 고려하여 '22년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참다랑어는 참치류 중에서도 고급 어종으로 코로나19도 안정화에 접어들고, 소비가 회복된다면 적당한 가격이 형성되면서 참치업계 회복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

출처 : 도쿄 상공 리서치

# 일본 수산 동향

## (3) 생선 소비자용 이력 표시 첫 도입

“어떻게 식탁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눈에 보이게 알 수 있게 된다면,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어류에 도입하는 “Ocean to Table”이 본격적으로 도쿄에서 시동을 걸고 있다.

레스토랑 / 가공·도매 단계의 이력 추적 확인 화면	어업자 정보 / 유통 경로
	

-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목표로 하는 협의회 “Ocean to Table”은 24일, 소비자가 구매하는 생선의 어획부터 점포 도착까지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을 시작
- 상품에 붙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생선을 어획한 일시/장소, 출하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10월 하순까지의 협의회 회원이 운영하는 생선 전문점 “sakana bacca”의 도쿄 2개 점포에서 실시
  - 9월 24일~10월 7일 / 15~28일까지 각 2주간으로 나눠서 실시
  - 농어, 삼치를 대상으로 실시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취지도 있지만, 중간 유통 경로를 가시화시켜 수산물 어획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운영을 가능케 하자는 측면도 있음
  - 관련 업계에서는 QR코드를 통해 이력 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가치를 높이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IUU 어업 근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 이번 실증 실험을 통해 소비자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할 예정

출처 : 미나토 신문

---

# 일본 수산 동향

## (4) 일본 수산청 인도네시아에 단속선 증여

지난 1월, 일본 수산청은 어업에서의 국제 협력 일환으로 일본에서의 활동이 끝난 어업 단속선을 인도네시아에 증여했다. 그리고, 9월 두 번째로 어업 단속선을 증여했다.

---

< 일본 수산청에서 인도네시아에 증여한 어업 단속선 >



- 일본 수산청은 어업 단속선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에 증여하기로 발표
  - 이번 증여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에 증여한 이후 2번째 증여
  - 일본 수산청은 본 증여와 관련, 인도네시아의 어업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

출처 : 미나토 신문

---

# 일본 수산 동향

## (5) IWC/일본 공동 북태평양 고래류 목시 조사 실시

일본은 '19년 상업포경 재개 이후에도, IWC (국제포경위원회)의 과학위원회 책정 계획을 바탕으로 IWC와 공동으로 북태평양에서 고래류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 (자원조사 목적) IWC 과학위원회가 책정한 계획을 바탕으로 북태평양에서의 고래류 자원조사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 국제적 고래류 자원 관리에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
  - 지속적인 목시조사 등에 의해 태평양에서의 고래류 자원량 등의 과학적 데이터를 파악·갱신하고 있음
  - '19년 7월부터 대형 고래류를 대상으로 재개한 포경업의 지속적인 실시를 위한 취지도 있음
- (조사위탁기관) 지정 고래류 과학조사 법인 일반사단법인 일본 고래류 연구소
  - 일본인 2명, 미국인 1명의 고래류 연구자가 승선
- (조사 기간) '21년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60일간 무기향)
- (조사 내용) 목시 조사, 바이옵시 (피부 표본) 채취, 외견적 특징 촬영
  - 보리고래, 혹등고래, 귀신고래 자원평가 관련 정보
  - 희소종인 서태평양 참고래, 대왕고래 관련 정보
  - 자원정보가 부족한 기타 고래류 자원에 대해 자원량과 계군구조에 관한 정보

- (조사 해역) 북위 40도 이북, 서경 155도 이동, 서경 135도 이서 중,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해역 (파란색 표시 부분)



#### ○ (조사 결과)

구분	발견	바이옵시 채취	외견 특징 촬영
보리고래	23군 37두	4두	15두
큰고래	77군 113두	9두	31두
브라이드 고래	20군 22두	2두	13두
대왕 고래	6군 7두	3두	7두

\* 보리고래 3두, 큰고래 2두에 잠수행동 기록을 위한 태그 장착

- 이번 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는 IWC와 공유, 향후 상세히 분석, IWC 과학위원회에서의 자원량 추정 등에 활용할 예정

출처 : 일본 수산청 보도자료